

지난 주에는 성도가 자기 인생 속에서 계속 체험해야 할 빛의 캠프의 관한 말씀을 나누었다. 이번 주에는 성도가 체험하고 누릴 언어 캠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다.

**삼상3:1에 보면 “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”고 했다.**

엘리 제사장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다. 사사 시대에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, 가나안 족속들에게 짓밟히며 살았는가?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.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소견(생각, 기준)대로 살았다는 것이다(삿21:25).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(아모스8:11)

**온 땅에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, 그 말씀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다(요1:1-4).**

이것은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,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.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, 그 빛의 말씀은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.

아무리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타락과 고통이 임해도 이 빛의 말씀이 있고, 그 빛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으면 된다. 성경은 그들을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했고, 뱀전2:9에는 모든 성도가 그 빛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했다.

## 1.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선지자들이다(19-20절).

**19절에 “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”고 했다.**

이 말은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본격적으로 자기의 선지자로 쓰시기를 시작하셨다는 뜻이다.

**그래서 20절에는 “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”(인정했다)고 했다.**

이 말씀 속에서 세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.

### 1)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,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다. 그들이 강단의 설교자들이다.

#### ①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가?

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,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에 더 이상의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,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. 그래서 시작된 것이 미스바 운동이다(삼상7장)

### ②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?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(신18:18, 렘1:9).

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보증하시고,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. 그래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(살전2:13).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, 내 일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.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함께 하고,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. 이 축복을 체험해야 한다.

### 2) 이 말씀을 세상에 가서 전하고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빛을 선포할 자들이 누구인가?

#### ① 그들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다(뱀전2:9). 빛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.

**“선포한다”는 말의 헬라어는 엑상겔로(exangelō)인데, 여기서 전도라는 “Evangelism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.**

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빛의 말씀을 대언하고, 선포할 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이다.

### ② 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전할 때에 흑암도 꺾이고, 그 입에 말씀(새방언)을 담아주실 것이라고 했다(막16:17)

**더 나아가 ‘보좌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사 그 증거를 보이실 것이라’고 했다(막16:20).**

성도가 누구에게 설교하듯이 하기는 어렵다.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때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 한다.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. 정확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, 증거를 보이신다.

## 2. 평상시 내 삶에서 빛의 능력이 나타나고, 거기에 내 말이 성취되는 역사를 훈련하고 체험해야 한다(언어 캠프).

### 1) 내가 빛의 복음을 누리는 만큼 그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.

가족 복음화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. 내 안에 빛의 누림이 있어야 하고, 그 때에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.

학교에서도,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. 말을 잘 하는 자가 아니고, 말이 능력과 축복으로 성취되는 것이다.

### ① 그래서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. 그것이 내 영적 상태를 만든다.

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면 나도 모르는 상처, 원망, 불평 나온다. 또 남에 대한 험담, 비난, 악한 말이 나온다.

내 상태에 따라 말이 나오지만 내 말이 또 내 상태를 좌우한다. 내 뇌가 내 입의 말을 듣고 몸을 움직인다.

**그 정도가 아니다.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은 반드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, 전달된다(전10:20).**

### ② 평상시의 내 입의 말과 마음에 담은 것이 하나님께 전달된다(시19:14).

지난 주 말씀처럼 내 평생의 3단계의 빛의 캠프를 하고, 매일이 빛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만들라.

### 2) 나의 믿음의 고백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고,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다.

#### ①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, 믿고, 입으로 시인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(롬10:17)

#### ②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의 응답을 만들고 축복을 만든다.

**그래서 “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, 화평을 구하며, 그것을 따르라”(뱀전3:10-11)**

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,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했다(뱀전3:12)

내 입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가 된다는 말이다. 하나님이 들으시는 의로운 기도가 된다는 것이다.

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미 그의 의를 가진 자이나 이제 평상시 입술의 말이 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다

### 3)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말의 축복이다. 오직 그리스도, 하나님의 나라,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.

엡5:18-21에 방탕을 만드는 술 취하지 말고,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열매 네가지를 말씀하셨다.

### 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(Speaking to One another)하게 된다고 했다.

내 입의 말이 시가 되고, 노래가 된다는 말은 말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다.

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,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.

### ② 내 마음에서 찬송이 나온다고 했다.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오듯이 성령에 취하면 찬송이 나온다.

### ③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다.

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 모든 어둠이 힘을 잃고,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다.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다.

### ④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나온다는 것이다.

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, 서로를 높여주고, 돕고, 섬기는 삶이 나온다는 것이다.

**결론-**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다.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담으시고, 그 말씀이 성취 되게 하시고, 나의 말이 하나님이 쓰시고, 축복하시는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한다.